

에너지, 삼척시와 바이오디젤 제휴

에너지(대표 김성수)와 강원 삼척시가 공동으로 바이오디젤 공장 설립에 관한 협약식을 가졌다.

에너지는 2008년 말에 삼척시에서 LNG 생산기지와 연계한 바이오디젤, 바이오오일, 농수산물 냉동창고, 유류탱크 터미널 등 4개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.

에너지는 정부와 공동 연구개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디젤 생산 연구가 완료되는 2013년 경 삼척을 중심으로 해조류 베이스 바이오디젤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.

삼척시는 2008년 7월 정부의 4번째 LNG 생산기지로 최종 확정됐으며 이를 계기로 LNG 연관 산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추진해 왔다.

이에 따라 2013년 삼척시가 LNG 생산기지와 항만 및 하역 시설을 갖추게 되면 해상운송을 통해 원료 조달 및 제품 납품이 가능한 입지 조건이 완성될 전망이다.

<화학저널 2009/01/13>